

# 마르크스의 정당한 이해 위한 원전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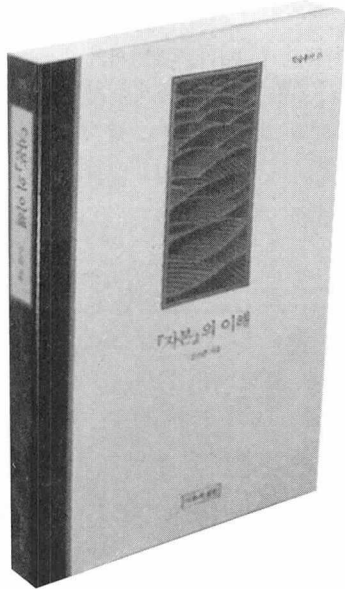
강신준 지음 「자본의 이해」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근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마르크스사상의 퇴조현상을 「자본의 이해」의 저자 강신준교수(동아대 경제학과)는 마르크스경제학 시장에서의 ‘썩쓸한’ 파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썩쓸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슬프고 애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마르크스사상에 대한 오해가 그러한 마르크스사상의 퇴조현상에 결정적이었기에 더욱더 그렇다. 마르크스사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마르크스사상은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쯤으로 생각하고, 또 그러다보니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이 마르크스사상의 종언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사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나 최소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한번쯤 읽어본 사람이라면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한 바가 없었음을 잘 알 것이며, 마르크스의 이론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이론이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이 아님을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마르크스사상은 우리 가까이 남아 있을 것이다. 강신준교수의 「자본의 이해」는 바로 이 점을 설득력있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

마르크스의 불후의 명저이자 그의 주저인 「자본론」—저자는 이를 「자본」이라고 부르고 있다—은 사실은 보통사람들이 읽기에는 너무 어렵고 경제학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너무 엉성한 저서이다. 「자본의 이해」는 보통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본론」의 중요한 부분들을 평이하게 풀이한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



스사상을 매우 위협하고 또한 비현실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마르크스사상이야말로 매우 인간적인 사상이요, 보통사람들에게 친숙한 사상이다. 마르크스의 저서들을 읽다보면, 인생에 대해서 고심해보고 또 세상이 왜 이 모양 이꼴인가를 탄식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머리에 떠올려봤을 만한 평범하고도 친숙한 생각들을 무수히 만나게 된다. 「자본의 이해」의 저자도 이 점을 생각하고 좀 과다하다고 생각될 만큼 많은 일상생활의 사례나 고사를 인용해서 「자본론」에 담긴 마르크스경제학을 매우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책이 그렇듯이 이 책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책은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잉여가치의 창출과 이의 착취 및 분배의 측면을 너무 과대포장 하다보니 마치 분배가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면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결되는 듯한 착각을 일반 독자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다분히 있다. 마르크스는 불공정한 분배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간단히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문제라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일방적으로 착취하지 않고 노동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분배한다고 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본주의사회의 시장경제체제가 몰고올 여러가지 문제들, 예컨대 인간소외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 관한 마르크스경제학만이 옳고 이와 대립되는 다른 사상, 예를 들면 주류경제학의 사상은 틀려먹었다는 식의 흑백논리에 빠져 있다. 그들은 주류경제학도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유력한 이론임을 좀체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이론은 있을 수 없다. 마르크스경제학은 자본주의의 어떤 한 중요한 측면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지 자본주의의 전체를 낱알히 설명해주는 이론은 아니다. 아마도 그런 이론은 없으리라. 주류경제학 역시 자본주의의 어떤 한 중요한 측면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주류경제학도 착취를 문제시 삼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르크스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은 문제의식부터 전혀 다르다. 항상 역사적 맥락속에서 우리의 현실문제를 바라보려는 마르크스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본 것은

계급투쟁으로 구체화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저 유명한 「공산당선언」(Communist Manifesto)에서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갈파하였다. 이에 반해서 주류경제학은 우리의 욕망이 무한함에 비하여 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은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한 희소성의 문제, 부족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경제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은 인류의 역사를 ‘자원의 인색’ 즉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라고 본다. 문제의 식만 다른 것이 아니고 문제를 접근해가는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마르크스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은 크게 다르다. 그러다보니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 전혀 달라진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경제학과 주류경제학 모두 자본주의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견해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마르크스사상과 주류경제학의 사상이 자본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보완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본의 이해」는 자본주의의 이해를 강조하면서도 주류경제학의 내용은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자본의 이해」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느 일방의 얘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경제학은 마르크스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을 통합한 포괄적인 경제학이라고 생각하며, 이 책은 그러한 먼 도정에 있어서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론과실천 / A5신 / 396면 / 9000원

<p><b>글동산 세계 명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발장</li> <li>로미오와 줄리에트</li> <li>톰 소여의 모험</li> <li>시턴 동물기</li> <li>파브르 곤충기</li> <li>안네의 일기</li> <li>작은 아씨들</li> <li>나외 라임오렌지 나무</li> <li>닐스의 신기한 여행</li> </ul>	<p><b>● 보물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국지(상, 하)</li> <li>어린 왕자</li> <li>해저 2만 마일</li> <li>사랑의 학교</li> <li>이솝 이야기</li> <li>빨간머리 앤</li> <li>오디세이아</li> <li>아라비아안 나이트(상, 하)</li> <li>탈무드</li> </ul>	<p><b>꿈이 있는 책</b></p> <p>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4 TEL / 336 · 5804 333 · 9991, 2 FAX / 333 · 9996</p> <p>도서출판 <b>글동산</b></p>	<p><b>● 그리스 로마 신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매기의 꿈</li> <li>마지막 잎새</li> <li>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li> <li>마지막 수업</li> <li>아Q정전</li> <li>수레바퀴 아래서</li> <li>크리스마스 캐럴</li> <li>키다리 아저씨</li> <li>노인과 바다</li> </ul>	<p><b>글동산 문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야기 한국사(I, II)</li> <li>한국 전래 동화</li> <li>어린이 명심보감(상, 하)</li> <li>중국의 옛날 이야기</li> <li>인도의 옛날 이야기</li> <li>프랑스의 옛날 이야기</li> <li>북유럽의 옛날 이야기</li> <li>페르시아의 옛날 이야기</li> <li>이야기 목민심서</li> </ul>	<p><b>글동산 만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화 김삿갓</li> <li>만화 주뎛</li> <li>만화 일지매</li> <li>만화 사자소학</li> <li>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li> <li>만화 고사성어</li> <li>만화 임궽정</li> <li>만화 공포</li> <li>만화 지도 루팽</li> </ul>
--	---	--	---	---	---